



QR코드를 통해
요셉의원과 만나세요

요셉의원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 필리핀요셉의원 |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소식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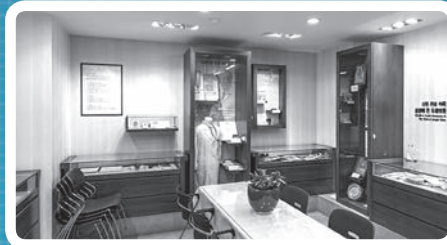
2023년 8월 제 **129**-1호

<http://www.josephclinic.org> | web.facebook.com/josephclinic1987

발행인 유경춘 편집 요셉의원 편집부 발행처 요셉나눔재단법인

(우) 073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100길 6 전화 : (02)2634-1760 FAX : (02)2677-5839 E-mail : info@josephclinic.org

선우선생 기념사업 준비 위한 기록화 작업 가속화 올 연말 전후해 선우 선생 전기 출간, 디지털 아카이브도 공개



본 재단에서는 선우 경식 초대원장 기념사업 준비를 위해 기록화사업팀을 중심으로 ▲전기 집필과 ▲관계자 증언 녹화 작업 ▲유품과 유물 분류 및 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요셉나눔재단이 출범하면서 선우 경식 초대원장 기념사업 준비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선우 선생 기념사업 준비는 3년 전 조혜봉 원장신부 재임시 준비위원회를 꾸려 진행해 오다 지난해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 취임 후 기록화사업팀을 개편하며 ▲전기 집필과 ▲관계자 증언 녹화 작업 ▲유품과 유물 분류 및 이를 기반으로 한 디



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먼저 선우 선생 전기 집필은 10여 년 전 선우 선생 선종 후 한 출판사와 의견을 조율하다 내부 문제로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선우 선생 기념사업 추진 필요성이 대두되며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전기 출판을 재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본원 기록화사업TFT에서는 전기 출판에

129-1호
주요
소식



1

선우 선생 기록화 작업



5

병원 소식



9

환자 스토리



14

필리핀요셉의원 소식



16

국성회 소식





선우 선생이 남긴 자료의 대부분은 요셉의원과 선우 선생 자택에서 수집한 것으로, 선우 선생 사후 선별 작업을 거쳐 현재 영등포 '요셉의 집' 기록물관리팀 임시 수창고에 보관 중이다.

관해 먼저 선우 선생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해 6월 집필자로 이충렬 작가를 선정했다.

이충렬 작가는 그동안 간송 전형필, 이태석 신부, 김대건 신부, 김수환 추기경 전기를 집필한 전기 전문작가로 알려져 있다. 이 작가는 “선우 경식 선생은 특히 사제나 수도자가 아닌 평신도 의사로서 결혼도 하지 않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진료와 자활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라며, “나와 내 가족만을 앞세우는 우리 사회풍토에서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한’ 그의 정신은 커다란 울림을 던져 준다”고 말했다.

집필 작업은 현재 자료 조사를 모두 마치고 작가의 구상대로 진행 중이며, 빠르면 올해 성탄절이나 내년 초에 국내 대형출판사 중 하나인 위즈덤하우스에서 출간할 예정이다.

증언 녹화 편집, 유품·유물도 정리 및 분류

전기 집필 외에 기록화 작업은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녹화·녹음 작업으로, 선우 선생 생전에 관계를 맺었던 사제나 수도자, 의사, 후원자, 봉사자, 학교 동기 등 50여 명을 선정해 이분들이 직접 만나고 교류하며 느꼈던 선우 선생의 생각과 실천, 인간적인 면모, 신앙적 형성 등에 대한 증언을 기록하고 있다.

7월 말 현재 사용 가능한 녹화 동영상



상 39건 중 33건의 편집을 완료했고, 이중 주요 녹화물은 전기 집필 작가에게 전달해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녹화물 편집이 완료되면 현재 구축 중인 선우 선생 디지털 아카이브에 필요한 내용을 선별해 수록할 예정이다.

기록화사업의 근간을 이루는 두 번째 작업은 선우 선생이 남긴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한데 모아 분류·정리하고 기록하는 일이다. 자료 대부분은 요셉의원과 선우 선생의 자택에서 수집한 것으로, 선우 선생 사후 선별 작업을 거쳐 병원 한곳에 모아두

었다가 현재 영등포 '요셉의 집' 기록물관리팀 임시 수창고와 요셉의원 2층 선우 선생 기념전시실에 보관 중이다.

선우 선생이 남긴 자료로는 ❶ 일기나 편지, 메모, 각종 공적·사적 서류들(문서류) ❷ 유년기, 청년기, 요셉의원 원장 시기의 다양한 모습이 담긴 사진들(사진류) ❸ 의학적, 인문 및 문학적, 신앙서적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도서류) ❹ 성상, 묵주 등의 성물과 각종 상장 및 상패, 청진기나 혈압계 등 의료기구와 펜, 카메라, 낚은 가방 등의 개인 물품, 여행지나 성지순례지에서 구입한 기념품과 선물로 받은 회화·서예·조각 등의 예술 작품(박물관류) ❺ 비디오테이프나 오디오 카세트테이프 등(동영상 및 음원류)이 있다.

선우 선생 간이 기념전시실 2012년 개관

선우 선생 관련 자료들은 앞으로 기념전시관이 마련되면 세부적인 분류와 전시 계획을 거쳐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본원에서는 선우 선생 선종 4년 뒤인 2012년 8월 29일 개원 25주년을 맞아 본원 2층 원장실 한 칸에 작은 기념전시실을 만들어 개관한 바 있다.

본원 방문객들에게 개방된 이 기념전



오덕주 전 요셉의원 후원회장이 선우 선생의 삶을 회고하고 있다.



황돈 도서관장 주관 아래 선우 선생 자택에서 수집한 일부 개인 유품들을 정리, 분류해 자료명과 수량 등의 목록을 작성했고 이듬해 상반기에는 기록물관리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일부 자료를 스캔, 촬영하고 엑셀에 자료 정보를 기록하는 기초 작업을 마쳤다.

지난해 7월에는 기록물관리 담당자가 합류해 정리 대상 기록물 범위를 넓혀 요셉 의원과 요셉나눔재단법인의 기록물까지 광범위하게 모으

2012년 8월 29일 개관한 선우 선생 기념전시실. 사진 위는 2019년 3월 15일 본원을 방문한 알프레드 수에레브 당시 교황대사가 전시된 선우 원장 유품을 사진에 담고 있는 모습.

시설에는 선우 선생이 평소 입던 의사 가운과 청진기, 국민훈장을 비롯한 각종 상패 상장 등과 함께 고인이 사용하던 성물과 카메라, 라디오, 휴대폰, 지갑, 모자, 장갑 그리고 손수 작성한 진료기록과 성서공부 자료, 환자들로부터 받은 편지 등 손때 묻은 핵심자료들을 전시해 생전 고인의 삶을 되돌아보며 추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념전시실은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역사박물관’의 당시 이명희 안젤라 관장수녀가 2011년부터 준비와 설계를 맡아 정성을 들였다. 전시 위주로 꾸며진 이곳의 유품과 유물 110건은 체계적인 분류 목록이 없어 이번에 기록관리팀에서 일일이 확인해 분류하고 목록을 작성했다.

이어 지난 2021년 4월에는 당시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런 작업을 거쳐 현재까지 요셉의원 초기 자료, 선우 선생 자료, 신완식 전임 병원장 자료를 입수해 임시 수장고에 보관하고 분류·정리와 목록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기록물 정리 작업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자료도 몇 가지 발굴했다. 선우 경식 원장과 당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이사장직을 맡고 있던 김수환 추기경이 날인한 선우 경식 원장의 요셉의원 ‘고용계약서’, 김수환 추기경이 작성한 선우 경식 원장 ‘초청 사유서’, 선우 경식 원장이 작성한 ‘본인 사유서’ 등이다. 기록물 관리 담당 신혜림 팀장은 “이 문서들은 미국 유학 당시 취업 등을 위해 취득한 미국 국적을 가진 선우 원장이 요셉 의원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체류 비자를 연장 혹은 갱



선우 선생이 소지했던 성물들로 목주가 많다(사진 왼쪽). 가운데는 장갑, 모자, 혈압계와 해군장교 복무 시절의 견장 등. 오른쪽 사진은 바인더에 정리한 선우 선생 관련 문건.



사진 왼쪽은 이번에 새로 발굴된 선우 원장의 요셉의원 '고용 계약서'와, 선우 선생이 작성한 '본인 사유서'. 오른쪽은 학창시절과 해군 복무시절에 찍은 사진.

신하기 위해 관공서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기록관·전시관 역할 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이번 기록화 업무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수집·정리된 자료들을 디지털화하고 이를 활용해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작업이다. 먼저 디지털화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전산화되지 않은 기록물을 스캔이나 촬영 등을 통해 디지털 형태(스캔 이미지 파일, 동영상 파일, 음원 파일 등)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오래된 문서나 사진과 같이 물리적으로 손상되기 쉬운 자료를 디지털 사본으로 만들면 원본과 사본을 비교적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디지털 아카이브란 이렇게 디지털화한 자료를 보관,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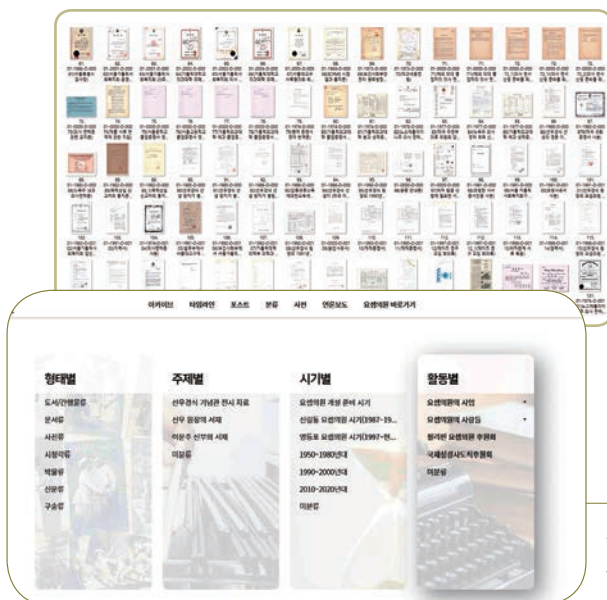
리하면서 온라인 공간에 공개·전시해 누구나 쉽게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홈페이지 같은 디지털 자료 전시 보관소라고 할 수 있다. 내년 초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아카이브' 웹사이트는 본 재단의 온라인 기록관 혹은 온라인 전시관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아카이브 웹사이트에서는 선우 경식 선생의 기록물뿐 아니라 요셉나눔재단과 요셉의원의 활동이 담긴 기록물, 역대 병원장, 봉사자, 직원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을 만나볼 수 있다.

"선우 선생의 '보편적 인간애' 널리 알리는 계기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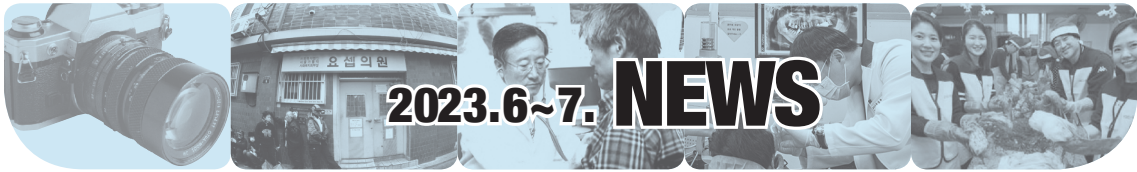
이번 기록화사업은 선우 선생의 60여 년 삶을 통해 그의 '보편적 인간애'를 되살피고 기리는 작업인 동시에 요셉의원이 수많은 봉사자, 후원자, 환자들과 함께 걸어온 뜻깊은 발자취를 돌아보는 작업이다. 아울러 요셉나눔재단법인과 요셉의원이 앞으로의 활동을 통해 만들어 낼 새로운 기록물을 쌓아나갈 밑바탕을 다지는 작업이기도 하다.

본 재단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는 "이 기록화사업은 무

엇보다 가난한 이웃을 사랑한 선우 경식 선생의 정신과 그 실천을 되새기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소개하고, "조만간 기념사업회가 정식 출범하면 재단 기념사업의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각종 문서를 스캐너로 스캔해 디지털화한 이미지 파일들(사진 왼쪽 위). 디지털 아카이브 소개 페이지(오른쪽)와 기록물 분류 화면(왼쪽).



본원 건물 벽에 '무슈 샤 고양이' 선보여

'무슈 샤(M. Chat) 고양이'로 유명한 세계적인 그라피티 아티스트 토마 뷔유(Thoma Vuille)가 지난 7월 21일 본원을 깜짝 방문해 건물 북쪽 외벽에 팔을 활짝 벌리고 웃는 모습의 고양이 작품을 그려주었다. 그의 고양이 그림은 칙칙한 쪽방촌에 평화로움과 웃음



고양이 그림을 선보였고, 여러 차례 개인전도 열려 국내에도 널리 알려졌다. 그의 이번 방문은 본원 진료 봉사 중 한 분인 신일영 교수(한림대 동탄성심병원)의 주선

을 한아름 선사해준다는 평. 스위스 태생에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토마 뷔유는 수년 전부터 우리 나라 거리나 지하철 등에 특유의

으로 이루어졌다. 토마 뷔유는 이번 작품이 좀 미흡하다며 10월쯤 다시 방문해 새로운 작품을 그려보겠다고 말했다. +



재단 원목수녀로 이완자 마리안나 수녀 부임

지난 8월 21일 본 재단 원목수녀로 이완자 마리안나 수녀(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가 부임했다. 올해로 서원 56주년을 맞는 마리안나 수녀는 평생을 가난한 이들과 함께한 노 수도자다.

1980년도 서울역 부근 양동 지역을 시작으로 1983년에는 부산 영도의 산꼭대기 달동네 선교 봉사활동을 개척해 그곳에서 9년 정도 활동했다. 이어 1990년대에는 남미 페루에서 10년 동안 가난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생활했다.

귀국 후 소속 수도회가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 밥집을 관리하며 가난한 이들을 위한 급식 활동을 하다 밥집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경북 울주군의 빈곤한 마을을 직접 찾아가 4년 정도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따스한 이웃이 되기도 했다. 이후 본 재단 부임 직전에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봉사자로 일했다.

이 마리안나 수녀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돕는 요셉의원에서 성모님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보며 버거운 삶의 무게를 나누어지고 싶다"고 말했다. +

후원자 도움으로 혈액검사장비 교체



본원 임상병리실은 2016년부터 7년 간 사용해오며 검사 정확도가 떨어진 일반 혈액 검사장비를 지난 8월 초 후원자의 도움으로 같은 기종의 새 장비로 교체했다. 처음 문제가 생기자 수리를 해서 쓰려고 했으나 수리

비용만 400만 원이 들어 교체로 방향을 바꿨다. 이번 장비 교체에는 오영임 루시아 후원자가 의료장비용으로 기부한 500만 원을 포함해 850만 원이 소요됐다. 일반 혈액 검사장비는 각종 염증이나 빈혈 등을 검사하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필수장비로, 정확도가 특히 중요하다. +

보성고 학생회, 노숙인 위해 생수와 죽 전달

서울 보성고 제116대 학생회(전교 학생회장 강유현) 임원 5명이 8월 16일 본원을 방문해 생수 240병과 쇠고기 죽 340개 등 50만 원 어치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강유현 회장은 “방학 전에 학생회 임원들과 상의해 학생회에서 폭염에 시달리며 힘든 여름을 보낼 노숙인 등 빈민층을 위해 쇠고기 죽과 생수를 마련하기로 하고, 방학 중에 성금을 모아 개학과 동시에 요셉의원을 찾게 됐다”며,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성고 학생회에서 2021년 10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책 기

부 운동을 펼쳐 200여 권을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 기증한 바 있고, 지난해 3월에는 전쟁의 참화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복구 지원을 위해 전교생 대상으로 48만 원을 걷어 우크라이나 지원 단체에 기증하기도 했다. +

선우 선생 기념판 제작

본원은 최근 2층 환자 대기실에 초대 원장 선우 경식 선생의 어록과 약력을 적은 기념판을 제작해 부착했다. 나이든 단골 환자 중에는 선우 선생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이도 있으나, 선종 15년이 지난 요즘

에는 선우 선생에 대해 아는 이가 드문 편이다. 이 기념판에는 “진료비가 없는 환자야말로 진정 의사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나는 하느님이 선물로 보내주시는 환자들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어록을 실어 선생의 가난한 환자에 대한 사랑과 실천을 되새기게 했다. +



신학생 현장체험 소감

‘예수님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힘 얻어’



김정수(그레고리오) 안동교구 신학생

요셉의원에 와서 제가 좋아하는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로마서 12,15)라는 성경구절을 제대로 잘 실천했는지 자괴감이 듭니다.

소외받는 이들과 함께하며 지내겠다는 저의 소망은, 겉모습만 본다면 이루어졌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분들과 함께 지냈다고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현관에서 처음으로 노숙인들을 맞이할 때, 기록실을 거쳐 간호과와 치과, 그리고 상담실에서의 저의 모습은 스스로 보기에 너무나도 많은 거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들을 단순한 환자로만 보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냄새가 나서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며, 살갑게 대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주고, 등을 쓰다듬어 주고, 그들의 타액을 아무렇지도 않게 닦아주는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저에게는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요셉의원에 와서 저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사제의 모습으로, 수도자의 모습으로, 여러 봉사자의 모습으로, 또한 소외받는 이들의 모습으로 만났습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또 어떤 모습의 예수님을 만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의원에서 겪은 소중한 경험들이 저에게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요셉의원에 봉사하고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열심히 기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보다 앞서 봉사한 모든 신학생들과 앞으로 오게 될 신학생들을 위해 함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분들께서 주신 과분한 사랑에 감사드리며 기쁘게 떠나겠습니다. [전문은 요셉의원 페이스북(web.facebook.com/Josephclinic1987/)에 수록] +

‘노숙인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최종림(세례자 요한) 광주대교구 신학생

찬미 예수님!

사실 저는 요셉의원에 오기 전까지 노숙인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여기서 살까? 무엇 때문에 이쪽으로 왔을까?’하는, 있는 그대로의 그들의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는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요셉의원에서 했던 ‘식사 나눔’ 활동과 ‘아웃 리치’ 활동을 통해서 노숙인들과 안부 인사를 묻기도 하고, 그날 가지고 간 도시락과 빵, 우유를 나눠주면서 그들의 삶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들을 바라보는 용기를 가지자’라는 것입니다.

위 두 가지 활동을 하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한 가지 비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혼인 잔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서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뻔한 핑계를 대며 거절하자 주인은 종들에게 동네로 가서 가난한 사람, 불구자, 소경, 절름발이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베푸는 잔치는 ‘사심 없는 선행’을 의미합니다. 사심 없는 선행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두 가지 계명 중 한 가지인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는 것과 더불어 그분께서 가난한 이들에게 베푸신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입니다.

사랑이란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고, 아는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몸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의원에서 그런 사랑을 봤습니다. 이곳에서 봉사하는 동안 저에게 베풀어주신 사랑과 이곳에서의 추억을 간직하고, 앞으로의 성소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은 내가 자리한 곳,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 존재 안에 심어주신 당신을 닮은 모습을 완성시킬 때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삶 속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전문은 요셉의원 페이스북(web.facebook.com/Josephclinic1987/)에 수록] +

쪽방촌 향기

‘사랑! 우린 멀리 이곳에!’

크라운 치료를 위한 지대치의 모양을 형성하고 임시치아를 처음으로 만들어 드린 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치아임에도 거듭 제 손을 잡고 기뻐하던 보호자 분과, 치료과정을 묵묵하게 버텨 준 환자분의 예쁜 웃음이 기억납니다.



요셉의원 소식지에 신게 될 글을 처음 부탁받았을 때, 가장 마음이 갔던 환자 한 분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틀니 제작을 위한 고령의 환자 분들이 대부분인 이곳에서 처음 만난 젊은 20대 환자이기 때문이었는지, 날이 대변에 풀려 이제는 식상하지만, 관측 이래 가장 이른 여름을 알리는 뜨거운 날이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보호자분의 간절함이 저에게까지 전달되어 안절부절못했던 기억이 나서인지, 날씨 탓에 그날따라 가볍고 밝았던 제 옷이 20대 또래와 걸맞지 않은 환자분의 옷과 너무 대비되어 부끄러웠기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독 말이 없던 환자분은 이미 모든 치아의 우식이 너무 심해 어느 곳도 씹히는 부위가 없었고, 다른 병원에서 ‘전악 발치 후 틀니 제작’ 진단을 받고 온 상태였습니다. 20대에 틀니라니, 보호자분과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는 환자를 다그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환자분은 현재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고 꽤 많은 신경과 약을 입에 털어 넣고 나면 며칠 동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해 치아 관리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길지 않은 임상 경험에서 ‘치아 상태는 그 사람의 살아온 환경’이라는 말을 점점 부정하기 힘들게 되는 요즘인 터라 이야기를 듣고 난 후부터는 환자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뒷편의 어금니는 우식이 매우 깊은 상태였기에 발치를 진행했지만, 환자분의 재정적 상황 때문에 다른 치료 대신에 전악 발치를 하기에는 나머지 치아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과정이 많이 길어지겠지만 어금니



김경원

본원 치과 봉사의 · 바른약속 치과 근무

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치아는 신경치료와 기둥치료를 통한 전악 크라운 제작으로 치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매우 더웠던 여름날들, 꼭 오셔야 한다는 여러 차례의 당부 전화들이 몇 번 지나고 나서 신경치료와 기둥치료가 끝이 났습니다. 크라운 치료를 위한 지대치의 모양을 형성하고 임시치아를 처음으로 만들어 드린 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치아임에도 거듭 제 손을 잡고 기뻐하던 보호자 분과, 치료과정을 묵묵하

게 버텨 준 환자분의 예쁜 웃음이 기억납니다.

요셉의원에서 봉사를 한 지 이제 1년 남짓 되었지만 아직도 일주일에 유일하게 쉬는 하루에 집을 나서려 하면 발과 몸이 움직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모든 진료가 끝나고 1층에서 저를 오며 가며 맞이하고 배웅해 주시는 선생님의 따뜻한 인사를 들으며 문을 나설 때 비로소 느끼는 몽글몽글한 휴일의 느낌을 알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시간을 공유하면서 진료하시는 원장님께서는 요셉의원에서 함께한 지 30년이 되었다고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진료 봉사를 하며 느꼈던 뜨거웠던 느낌들과 기쁨, 힘들음 수도 없이 겪으셨겠죠. 요셉의원에서 만나 뵈게 되는 원장님들과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에게서는 매번 그런 담담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대로 그게 사랑의 오랜 모습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요셉의원과 함께할 시간들이 오랫동안 담담하기를 바라면서, 요셉의원의 선생님들! 그리고 저 또한 모두, 사랑! 우린 멀리 이곳에! +



환자스토리

청각 장애로 일자리 못 구해 애태우는 이정민 씨

“건강한 사람도 많은데 귀 안 들리는 사람 써줄까요?”



본원에는 외부 복지기관이나 주민센터의 소개로 내원하는 환자들이 더러 있다. 후천성 청각 장애를 앓고 있는 이정민 씨(64)도 강서구 한 주민센터의 안내를 받아 4년 전 본원에 와서 틀니를 해 넣었고, 최근에는 보청기 장착에도 도움을 받았다. 본원에서 이비인후과 봉사의와 상의해 보청기 장착에 도움을 준 사례는 이 씨가 처음이다.

“지난해 7월 중순쯤이었어요. 자고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틀어보니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카세트 레코더를 틀어봐도 마찬가지고요.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함께 이대목동병원에 가서 6개월을 치료받았는데, 나이가 50이 넘어서 청각이 돌아올 확률이 50% 정도밖에 안 된다며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방법은 인공 와우를 이식하거나 보청기를 끼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인공 와우는 수 천 만원의 시술비가 필요하고, 보청기는 200~300 만원 정도 하지만 장착을 해도 그렇게 잘 들리지는 않을 거라는 설명에 돈도 없어 포기하고 말았다. 이 씨는 1992년도 초에 오토바이 사고로 오른쪽 귀 청력을 잃은 뒤 30년 만에 다시 왼

쪽 귀가 안 들리게 된 것.

환자 이 씨는 치과 치료 당시 고혈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본원에서 몇 달에 한 번씩 혈압약을 타고 있었다. 본원 간호팀장은 어느 날 진료 차례가 돼 호명을 하는데도 이 씨가 못 알아듣는 것을 보고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아보라고 권했다. 본원 봉사의로 올해 초 이 씨를 진료한 부천 ‘프라임 이홍엽 이비인후과’ 이홍엽 원장은 환자 이 씨를 직접 자신의 병원으로 불러 네 차례 정도 자세히 청력검사를 하고, 보청기 혜택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주었다.

“심사 두 달 후엔가 정부에서 보청기 값을 지원해주는 데, 보청기 회사에서는 환자가 먼저 자기 돈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요셉의원에서 보청기 비용 110만 원을 지원해 주었고, 나중에 제 계좌에 지원금 111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보고, 요셉의원에 110만 원을 후원금으로 기부했습니다.”

석 달 전 보청기를 장착한 이 씨는 왼쪽 귀가 30% 정도 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좀 큰소리로 얘기해야 입모양과 소리를 조합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다.

고교 졸업 후 시골에서 상경해 야간 술집 관리 일을 했던 이 씨는 “처음에 기술을 배우든지 했어야 하는데 길을 잘못 들었다”고 후회했다. 당시 싸움에 휘말렸던 사건이 있던 뒤 마음을 다잡고 건설 노동을 시작했던 그에게 이제는 청력이 또다른 장벽으로 다가왔다. 오는 10월이면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이 끝나 50여 만원의 수급비도 탈 수 없게 된다는 그는 다시 새벽 일 나가서 노동 일을 하려고 해도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건강한 사람도 많은데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을 쓰겠어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청력이 약해도 이해하고 써줄 회사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은 해봤으나, 별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밥맛도 없어 하루 두 끼 먹고 잠도 설친다는 그는 ‘잠든 후에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다고 했다. 그러나 어렵사리 보청기도 장착하고, 남을 위해 선뜻 기부금도 건넨 그에게 분명 또다른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



봉사자 코너

봉사자 코너- 마티아 한의과 봉사자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마티아 봉사자 부부는 일찍부터 함께 봉사를 다녔다. 아내 마리아 씨는 마티아 봉사자가 침의 길이나 두께에 맞는 번호를 불러주면 바로 맞는 침을 골라 건네준다.

마티아 의료봉사자(68·한의사)는 본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진료봉사에 쏟고 있는 분 가운데 하나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는 종로3가 동의동 쪽방촌에서 2시간씩 진료를 하고, 매월 1~3주 금요일 저녁때는 영등포 요셉의원에 와서 환자들에게 침 치료를 하고 있다.

청빈하게 재속 수도생활하며 40년 전부터 봉사

이렇게 적지 않은 시간을 봉사에 헌신하는 데 대해 그는 가톨릭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의 기도 얘기를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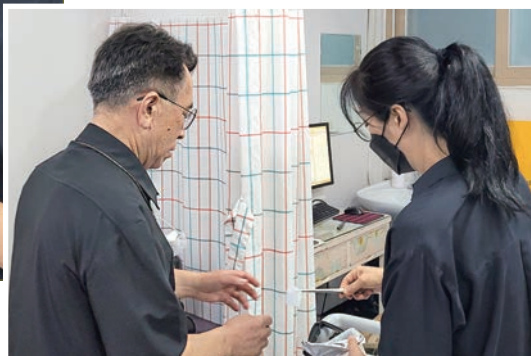
“그 수녀님이 ‘저의 진정한 휴식은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이라고 기도하신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정말 기가 막힌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봉사하러 간다고 하지만 실제 가보면 환자들께 뭘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많이 얻어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한의사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마음을 추스르고 충전하니 바로 진정한 휴식이지요.”

대학 졸업반 때부터 의료봉사를 시작한 그는 아내 마리아 씨와 함께 봉사를 나가고 있다.

“남편과 함께 다니니까 좋지요. 주로 옆에서 침의 길이나 두께에 맞는 번호를 불러주면 맞는 침을 골라서 건네주고, 진료 후에는 뒷정리도 함께합니다.”

한의원 개업했다두어 번 실패 후 접어

옆에서 보면 부부간에 나이 차이도 좀 나서인지 오누이같이 다정하게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 집안 살림살이 면에서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단다.



마티아 봉사자는 독실한 신앙인인 데다 원칙주의자여서인지 지금까지 두어 번 한의원을 개원했지만 ‘말아 먹었다’고 한다.

“한의원 할 때 환자들은 많았어요. 그런데 보약을 지으러 온 환자에게 일단 치료 약을 먼저 복용한 뒤에 보약을 드시라고 했더니, 자기를 무시했다고 화를 내는 환자분들도 있고, 또 치료 약을 복용하고 난 다음에는 보약이 더 이상 필요없는 환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 매출이 시원치 않아 운영이 원활하지 못 했지요.”

마티아 봉사자는 이런 실패에도 옆에서 곳곳이 버텨준 아내가 고맙기만 하다. 아내 마리아 씨는 “한의원 할 때는 병원 운영비 마련에 늘 쪼들렸는데, 봉급생활을 하니까 액수는 적어도 계획대로 쓸 수 있어서 훨씬 낫다”고 말했다.

“힘들게 살았지만, 이상하게 부족하게는 살지 않았어요. 꼭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남편 마티아 봉사자는 “만약에 아내가 돈 많이 벌어요 라고 채근해서 마음을 다르게 먹고 돈 벌기로 했다면 경제적으로는 어려울 게 없었을 것”이라며, “외부에서 그런 유혹도 더러 있었으나 아내의 만류로 힘들지 않게 유혹을 뿌리쳤다”고 말했다.

한때는 넓은 아파트에서 살기도 했으나 지금은 다세대 주택 5층에서 막내딸과 세 식구가 살고 있다. 마티아 봉사자는 “아내가 보통 사람 같았으면 벌써 도망갔을 것”이라며 웃었다.

“저보다 나이 어린 아내가 많이 참아주고, 신앙심을 기르면서 제 뜻을 알고 함께하니 돈은 없어도 행복하지요.”

구교 집안 출신에

수도회 3회 회원으로 활동

부부가 이렇듯 어려움 속에서도 도타운 부부애를 키워온 이면에는 신앙도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부부는 한 수도회의 3회(재속회) 회원으로 세속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행하는 수도자들이다. 5,6년 전 우연한 기회에 부부가 거의 동시에 가입한 이 수도회에는 공식적으로 한 달에 두 번씩 본원에 가서 교육을 받지만, 스스로 영성을 쌓아가야 하니 공부할 게 많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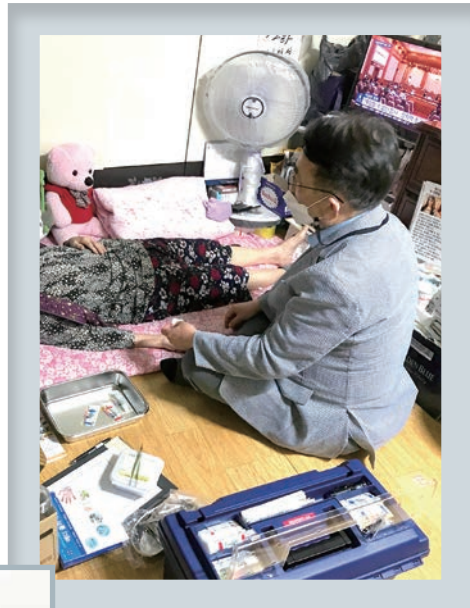
“아내와 함께 같은 수도회 3회원이라서 신앙적인 대화가 많고, 아내가 늘 생활에서 기쁨을 찾는 모습을 보며 성모님의 은혜가 아난가 생각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티아 봉사자는 이른바 ‘구교(舊敎)’ 집안 출신. 천주교 박해가 끝난 뒤 경북 청도에 살던 증조부가 천주교 믿는다고 집안에서 쫓겨나 충청도 나바위 쪽으로 갔다가 할아버지 대에 전남 목포로 옮겼다. 신앙을 위해 고향을 떠나온 가족인 만큼 성당에 딸린 집에서 살며 조부가 사목회장에게서부터 사무장, 종지기 일까지 도맡아 하셨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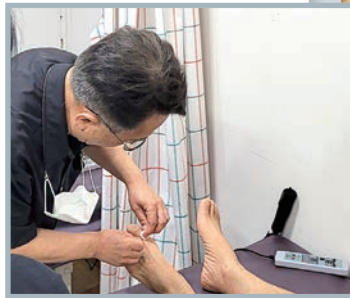
“어렸을 때 보면 주교님도 가끔 오시고 신부님들도 자주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버님 형제가 뱃인데 둘째인 아버님만 장가가시고 나머지 세 분은 모두 신부님이 되셨어요.”

“봉사라기보다 나눔은 제게 기쁨이죠”

부부의 돈독한 믿음 때문일까. 부부는 여러 번 힘든 고비를 넘어왔음에도 얼굴이 밝다. 2녀 1남을 두고 있는



마티아 봉사자는 자신이 하는 의료봉사를 봉사라기보다 작은 나눔이자 기쁨이고 힘을 얻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위 사진은 쪽방촌 방문 진료를 하고 있는 마티아 봉사자.



부부는 그런 신앙 안에서 자녀 교육도 자율을 우선시켰다고 말한다. 장녀는 캐나다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이고, 차남은 컴퓨터 공학과 재학 중, 그리고 막내딸은 고교 3학년이다.

“애들이 숯가락질할 줄 알면서부터는 아내가 아이들이 식사를 스스로 하도록 했어요. 얼굴에 묻히고 바닥에 흘린 것을 치우려면 먹여주는 것보다 훨씬 힘이 들었겠지요. 이렇게 모든 일을 스스로 하도록 했더니 오히려 자기 개성대로 잘 크는 것 같더군요.”

학원도 본인이 원할 때만 보냈다고 한다.

“막내인 딸도 참 기특하게 잘 컸다고 생각해요. 어느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큰 아파트에 살 때는 아빠 얼굴 보기 참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빠 얼굴 자주 봐서 좋다’고요.”

마티아 봉사자는 “요셉의원에 오는 것이 봉사라기보다는 작은 나눔이고 기쁨이며 힘을 주는 원동력이기에 기력이 있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꾸준히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삶의 굴곡에 순명하며 살아온 부부는 모두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 그 비결은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성경 말씀을 몸으로 실천해 왔기 때문이 아닐까. +

후원의 손길



대학 창업 동아리에서 물품 제작·판매해 기부한 김예은 씨

“무료 병원 운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생 후원자인 김예은 씨는 의료 취약계층 환자들을 무료로 진료해 주는 요셉의원에 감동받아 후원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본원 후원자들 중에는 자신의 용돈을 꼬개거나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모아 기부하는 젊은이들이 종종 있다. 젊은 시절 학비는 물론이고 데이트 하고 나들이 다니려면 돈이 필요할 텐데, 남을 위해 선뜻 나눔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안산대학교 방사선학과 졸업반인 김예은 씨는 지난 7월 말 창업 동아리에서 만든 캐릭터 문구류를 제작, 판매한 수익금 중 50%인 8만여 원을 본원에 쾌척했다. ‘의료 취약 계층분들을 위한 무료 병원을 운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지난 6월 초 창업동아리 셀(Cell)을 만들어 학교에 등록하고 열쇠고리나 텀블러 같은 물품을 직접 디자인해서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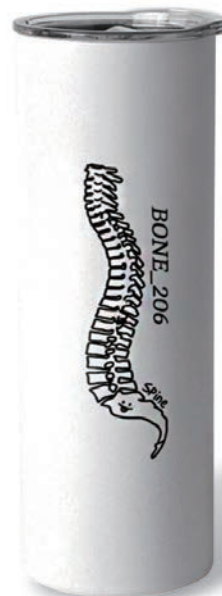


사선사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어 봉사는 못 가고 대신 약소하나마 마음만을 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어린 시절 고향 대전에서 교회에 열심히 다녔던 그는 일찍부터 학습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과학 교육 봉사를 하기도 하고 기부 대열에 동참하기도 했다.

“교육과 건강은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공도 보건계열을 택했고, 교육 봉사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이런 부분들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 또한 감사할 일이지요.”

김 씨는 “국가고시에 합격한 뒤 방사선사로서 요셉의원에 꼭 봉사를 오겠다”고 다짐했다.+





요셉의원 | 후원 및 기증현황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분(2023년 6월~7월)

- 강민우 ● 강석중 ● 고성필 ● 구강희 ● 권민경크리스티나 ● 권민선
- 권인순 ● 김나현 ● 김도연 ● 김로지 ● 김미령 ● 김민준 ● 김선희 ● 김수경
- 김연훈 ● 김영산 ● 김예은 ● 김은지 ● 김은진 ● 김익호 ● 김인혜 ● 김재영
- 김정섭 ● 김학형 ● 김현숙 ● 김혜남 ● 김혜선 ● 김혜순 ● 나원영 ● 류신환
- 문경미카엘라 ● 문현일 ● 박미경 ● 박민지 ● 박서영 ● 박지영 ● 방대웅
- 방선우 ● 배건형 ● 배기태 ● 배현순 ● 변시형 ● 서범석 ● 서상열 ● 선은빈
- 여인식 ● 오용호 ● 오정희 ● 윤분선 ● 이경운 ● 이근성 ● 이기태 ● 이나결
- 이말다 ● 이민수 ● 이병준 ● 이병찬 ● 이보연 ● 이상길 ● 이선구 ● 이소라
- 이순예(박순조) ● 이영인 ● 이은정 ● 이은행 ● 이정민 ● 이지현 ● 이진호
- 인영애 ● 임도현 ● 임승훈 ● 장성숙 ● 장성학 ● 장은미 ● 전우준 ● 정명화
- 정문주 ● 정미영 ● 정민아 ● 정선미 ● 정지민 ● 조동일 ● 조예승 ● 조현찬
- 조희정 ● 최지원 ● 한명섭 ● 황수현 ● 황승민 ● 황익중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단체(2023년 6월~7월)

- (주)메디인사이드 ● AA한길그룹 ● 경인메디칼 ● 동아제약(주) ● 파킹137



+ 주·부식을 보내주신 분(2023년 6월~7월)

- 강신걸, 김선화(피스오브헤븐) : 롤케이크 116개 ● 김* 희(파주시) : 쌀 10kg
- 김유순 : 감자 2상자 ● 김평옥 : 밤호박 4상자 ● 꿀벌유치원 : 쌀 140kg
- 박규미 : 떡 4상자 ● 백두관 : 감자 3상자 ● 성모노인복지센터 : 수박 2통
- 시메온 수녀 : 배즙 2상자 ● 윤현지 : 카스텔라 150개 ● 익명 : 쌀 40kg



+ 의류·신발을 보내주신 분(2023년 6월~7월)

- 길두섭 : 의류 5상자 ● 박* 경(부산) : 의류 1상자 ● 서상력 : 의류 1상자 ● 염수현안드레아 : 치료용 침대(1), 담요 3상자, 겹이불 3상자
- 제주교구신학생회 : 의류 6상자 ● 티앤오 어패럴(대표 이민식) : 의류(런닝) 120점



+ 의료가·의약품을 보내주신 분(2023년 6월~7월)

- 경인메디칼 : 자누비아 외 5건 ● 대웅제약 : 세노메가 정 ● 동아제약 : 비타민C ● 이학길 : 목발 1쌍, 이동보조기 1개 ● 하나제약 : 텔미디핀 외 23건 ● 한미약품 : 안토시안 정



+ 집기·소모품을 보내주신 분(2023년 6월~7월)

- 고성교요셉 : 마스크94 4,000장 ● 박* 로니카 : 잡화 1상자 ● 정종재프란치스코 : 삼푸 2상자(80개) ● (주)배관랜드 : 마스크94 1,000장



직원 및 봉사자 동정

+ 새로 봉사 나오신 분

- 의 사 : 홍윤범(외과)
박경미(한외과)
- 약 사 : 김민아 김은숙 오시영 이희옥
정영미, 손희정(영등포구 약사회)
- 방사선사 : 나주아
- 임상병리사 : 최문영 최정미
- 일반 봉사 : 김보현 양지은 전현아
약대학생
(동국대 5명, 숙명여대 3명)

+ 우리 병원에서 나눔한 기관·개인

- 구리 외국인센터
- 살레시오 청년센터
- 토마스의 집
- 핸더슨

+ 요셉의원 월별 환자 진료수

2023년 6월	1,246 명
2023년 7월	1,201 명



개원 이후 총 진료환자 수(2023년 7월 말 현재)

739,539 명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필리핀요셉의원 소식

2023. 6~7.

김다솔 신부의

필리핀 현지통신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의료봉사팀, 8일간 1600명 진료



지난 7월 1일부터 8일까지 모두 8일간에 걸쳐 한국가톨릭의료협회가 주관하는 필리핀 의료 봉사가 진행되었다. 우리 나라 여러 가톨릭계 병원과 외부 병원에서 모인 21명의 의료진을 비롯해 일반 봉사

자 2명과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된 총 27명의 팀이 8일 동안 봉사에 매진했다.

봉사팀은 요셉의원에서 이틀간 진료를 하고, 이어 깔로오칸 교도소, 산바르톨로메 성당, 산호세 성당을 각각 하루씩 방문

해 모두 1608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코로나 이후 의료봉사 규모로는 가장 많은 환자를 진료한 것이다. 진료를 받고 간 환자들 이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하거나 먹을 것을 사다 주기도 하는 등 이번 봉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치러졌다.

봉사에 참여한 의정부성모병원의 김지영 간호사는 “이번 봉사 활동을 통해 내가 누군가의 인생에 작으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보람을 느꼈고 이것이 바로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며 “7박 8일의 봉사 기간 동안 요셉의원의 설립 이념과



복음 묵상

“그분 섭리의 도구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느님께서 불러 주셨기 때문에 그분 뜻에 맞는 과정과 결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할 따름입니다.

하느님 섭리를 체험하는 사람으로서, 또 그분 섭리의 도구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저는 별로 부지런한 사람은 아닙니다. 일을 하는 것을 즐기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의미 없는 일에 시간 보내기를 즐겨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 있으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 필리핀 요셉의원에서는 일중독으로 불리곤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불리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돌아보면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일 안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한 노력이 그렇게 비추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코 자기 자랑이나 유세를 떨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의 게으른 성정을 뛰어넘도록 하는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신학생으로 양성을 받고, 신부로서 얼마간을 살아오면서 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느님의 섭리를 느꼈습

니다. 그것이 무척 대단하거나 분명한 사건은 아니었을 지라도 일상 곳곳에서 하느님의 섭리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서, 걷다가 스치는 사람의 얼굴에서, 맑은 날은 물론 폭풍우가 치는 밤에서도 하느님의 섭리가 저를 인도한다는 것을 문득 문득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결코 일을 부지런히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상황이, 환자의 말 한마디가, 그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요청이 저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할 뿐이었습니다. 저의 게으름과는 상관없는 하느님의 이끄심을 외면할 수 없었고, 성실히 그 이끄심에 응답할 따름입니다.

많은 일에서 섭리를 체험합니다. 언젠가는 집짓기 프로젝트를 위해 가정방문을 다니다가 우연히 그 지



가톨릭의료협회 봉사팀이 산바르톨로메 성당에서 외과 진료를 하는 모습.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충만한 일정을 보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학생 3명 현장 실습 프로그램 참여

지난 6월 말 신학생 3명이 실습을 위해 필리핀 요셉의원을 찾았다. 이번에 배정된 실습생은 임지환 베드로, 양정규 베드로, 이지훈 세례자요한 신학생으로, 이들은 군 제대 후 1년간 주어지는 프락티쿰 실습을 하기 위해 요셉의원에 오게 됐다. 이들 신학생은 6월 말부터 약 6개월간 머물면서 주변 지역 방문, 무료 급식 실습, 가정방문에 동행하고 의료팀이 방문하면 진료 보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김다솔 야고보 원장신부



사진 오른쪽부터 양정규, 임지환, 이지훈 신학생

는 “이들이 다양한 사목 현장에서 하느님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과 만나고,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사는 이들을 폭넓게 이해할 기회를 얻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후 의료기기 교체하고 의료 시스템 점검

필리핀 요셉의원은 지난 2013년 개원과 함께 한국의 후원회와, 개인 후원자 및 영등포 요셉의원으로부터 치과용 진료의자나 소독기, X선 촬영기 등의 의료기기를 공여받

아 사용해 왔으나, 올해 개원 10주년을 맞아 기존의 의료기기를 점검하고 필요한 기기를 새로 도입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특히 지난해 마닐라 중앙대(MCU)와 협약을 맺고 이곳 의대 교수 등 의료진이 진료를 개시함에 따라 필요한 의료기기 수요도 늘어났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먼저 외과용 전기소작기와 이동식 X선 촬영 차량 도입을 완료됐고, 앞으로 치과용 X선 촬영기와 이동식 초음파 진단기기를 들여올 예정이다. +



필리핀 요셉의원에서 마닐라 중앙대(MCU) 의료진이 협진하는 모습.

역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외지인인 저희로서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찾기 힘들어서 곤란해하고 있던 찰나 그분을 만남으로써 정말 도움이 필요한 가정까지 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한번은 지나치듯 꺼낸 한마디를 듣고 요셉의원을 방문한 환자가 정밀검사를 받고 수술로 완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이 일을 설령설령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말이나 행동이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일처럼 다가올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과가 어찌 될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 욕심으로 시작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집착도 지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하느님께서 불러 주셨기 때문에 그분 뜻에 맞는 과정과 결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할 따름입니다. 하느님 섭리를 체험하는 사람으로서, 또 그분 섭리의 도구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

김다솔

필리핀요셉의원 원장신부

+ 2023년 6월 ~ 7월 신규 후원회원(10명)

- 강유희 ● 김진경 ● 김희현 ● 유예진 ● 이수미
- 장경희 ● 조동일 ● 조현숙 ● 최수진 ● 황광욱

+ 2023년 6월 ~ 7월 진료 및 급식 통계

- 진료 820명 ● 급식 9,661명

+ 개원 이후 총 진료 및 급식 인원(2023년 7월 현재)

- 진료 93,116명 ● 급식 488,393명

+ 필리핀요셉의원 후원 계좌

☎ 070-4688-3412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홈페이지(<http://philjsclinic.org>)를 통해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364301-04-150303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우리은행	1005-201-940450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미사
안내

매월 넷째 주 금요일 11:30 요셉의원 내 경당
미사지향 : 고 최영식 마티아 Fr. 및
필리핀요셉의원 후원자들을 위하여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소식

2023.6~7.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는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난 때문에 읽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의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성경 한 권은 앞날을 비춰주는 빛이고 희망입니다.

유경춘 주교, 아프리카 차드에 보낼 부족어 성경 축복식

국성회가 지원하는 2차분 성경 5,000권



축복식 주례를 맡은 유경춘 주교(가운데)와 홍근표 요셉나눔재단 사무총장 신부(우측에서 여섯 번째), 김대영 가톨릭출판사 사장신부(좌측에서 다섯 번째), 박찬순 국성회 후원회장(우측 다섯 번째)과 국성회 임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아프리카 차드의 부족어 은감바이어로 번역된 가톨릭 성경이 우리나라 후원자들의 정성에 힘입어 두 번째로 제작, 전달된다. 요셉나눔재단법인(이사장 유경춘 주교) 산하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이하 국성회)는 7월 24일, 서울 중림동 가톨릭출판사 마리아홀에서 유경춘 주교의 주례로 차드 은감바이어 성경 5,000권 기증 축복식을 가졌다. 이 축복식에는 유 주교와 본 재단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 국성회 회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유 주교는 축복식 강론에서 “가난과 내전, 정치적 불안으로 나라 전체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드에서 성경 말씀을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어 성경 전달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말하고, “여러 신자분들이 국성회를 통해 정성껏 후원해 주셔서 오늘과 같은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됐다”고 치하했다.

유 주교는 이어 “이 축복식을 통해 단순한 성경 축복이 아닌 성경을 전달받게 될 차드의 신자들을 기도 중에 기억하자”며, “전달된 말씀이 그들의 삶에 직접적인 활력소가 되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삶을 이끌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한 성경은 지난 7월 21일 인쇄와 제본이 완료돼 7월 28일 컨테이너에 선적해 부산항으로 보냈다.



수송 컨테이너에는 성경만이 아니라 국성회에서 기증하는 의류, 신발, 잡화 등의 후원물품과 함께 가톨릭출판사에서 기증하는 성물도 실렸다. 성경 등 전달 물품은 2개월 남짓 걸려 아프리카 차드 도바 교구에 도착할 예정이다.

차드 은감바이어 성경 지원 계기는 2018년 9월, 바티칸 교황청에서 열린 신임 주교 연수 행사에서 시작됐다. 당시 연수에 참석한 마르탱 와잉우에 바니 주교(차드 도

바 교구장)가 서울대교구 구요비 주교에게 ‘어려운 나라에 성경을 보급하는 단체가 한국 서울에 있다고 들었다’며, 도바 교구의 주요 부족어인 은감바이어 성경을 지원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에 구 주교가 당시 국성회 지도신부였던 이문주 신부에게 성경 지원 요청을 전달했고, 이듬해인 2019년 12월 은감바이어 성경 3,000권을 제작, 지원했다. 이번에 선정한 성경은 지난해 초에 2차로 요청받은 것이다.+

☞ 국성회의 은감바이어 성경 1차, 2차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 소식지 125호(2023년 1월) 17~18쪽 참조 바랍니다.

카메룬 주교 방문해 국성회 후원 미사 공동 집전

바피아 교구장 유광 주교, 도움에 감사... 지속적인 지원 요청



국성회 후원 미사 후 국성회 임원들과 자리를 함께한 유광 주교(가운데). 사진 오른쪽에서 네 번째는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 세 번째는 박찬순 국성회 후원회장.

아프리카 카메룬 바피아 교구장 ‘에마누엘 다시 유광’ 주교가 7월 11일 오전 요셉나눔재단을 방문해 재단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와 함께 국성회 후원 미사를 집전하고, 요셉의원 선우 경식 초대원장 전시실을 비롯한 요셉의원 곳곳을 둘러봤다. 유광 주교는 이날 미사 강론에서 “한국 교회의 복음화 선교가 평신도에서 시작되었다는 점과, 순교에 이르기까지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증언하신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카메룬 교회 특히 저희 교구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지속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유광 주교는 지난해 국성회에 성경 등을 지원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국성회에서는 이 요청을 검토한 끝에

성경 1,500권을 지원한 바 있다. 이어 요셉나눔재단에서는 올해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카메룬 바피아 교구에 해외 의료선교 지원금 약 1,130만 원을 전달했다.

프랑스로부터 1960년 독립한 카메룬은 아프리카 중서부 지역에 위치한 인구 2,800만 명의 농업 국가로, 개인 국민소득이 1,500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각종 사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의료시설도 미흡해 간호조무사가 의사 역할을 대신하고 있을 정도다.

유광 주교가 교구장으로 있는 바피아 교구는 관할 구역이 남한의 3분의 1 정도에 이를 만큼 광대하지만, 정작 각 지역을 찾아가 사목할 수 있는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이 매우 적어 사제들이 보통 20km 정도를 걸어서 신자들을 만나러 간다는 것.



사진 왼쪽은 요셉의원 방명록에 인사말을 적는 유광 주교, 미사를 마친 뒤 본원 고영초 병원장이 유광 주교에게 선우 경식 초대원장 전시실을 비롯해 병원 곳곳을 안내했다.

유광 주교는 이 지역의 소득을 높이려면 농업 기술을 교육, 확산시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최선이라 보고 얼마 전 농업학교를 설립했다. 그러나 돈이 없어 학생들이 수업할 교실을 마련하지 못해 외부의 도움을 구하던 차

국제구호단체인 올마이키즈의 도움으로 인천 중산동 성당과 연결돼 기본적인 건축기금을 확보하게 됐다. 유광 주교는 이번에 중산동 성당 방문과 함께 국성회와 요셉 나눔재단에도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들렀다.+

☞ 카메룬에 대한 지원 내역 : ■ 2020년 6월 12일 바푸삼 교구에 프랑스어 성경 1,500권 후원(=15,000,000원) ■ 2022년 8월 10일 바피아 교구에 프랑스어 성경 1,500권 후원(=15,600,000원)

※ 에마누엘 주교는 바푸삼 교구 소속이었다가 2020년 7월 11일 바피아 교구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이슬람이 대다수지만 성경의 싹을 틔우고 싶습니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성경 지원 요청 편지



가정집을 개조한 성전 옆에서 야외 미사를 집전하는 모습.

찬미예수님, 저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교구에서 선교 사목 중인 백선우 라디슬라오 신부입니다. 2020년 12월에 카자흐스탄에서 선교를 시작해 2년 6개월 동안 현지인들을 위한 사목과 선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폴란드 신부님 두 분 그리고 콘솔라타 수도회 수녀님 세 분과 함께 알마티 시내에서 1시간 떨어진 마을에서 사목 중입니다. 저희 마을을 포함해 차로 1시간 거리 안에 7개의 교우촌이 있고, 각 마을에 작은 성당 혹은 공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당이나 공소가 아니라, 과거 소비에트 시절에 지어진 가정집을 개조해 성전 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그리스도교 문화권 국가가 아니어서 성경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구 내에는 성물이나 성경, 신앙 서적을 파는 상점이 하나도 없어서,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 성경을 구입할 수 있는 다른 교구로 직접 찾아가거나, 러시아에서 주문을 해서 우편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성경 가격도 가난한

신자들에게는 다소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혼인성사 혹은 청소년들의 첫영성체 및 견진성사 때 성경을 선물해주고 싶어도 제때에 성경을 구입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아울러 저희들에게는 어린이 성경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러시아에는 어린이들이 읽기 편한 어린이용 성경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성경을 구입할 수 있으면,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교육과 교리 교육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교구 안에서 사도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수녀님들께서 최근 ‘성서와 함께’ 출판사에서 발행한 성경읽기 문제집 ‘보시니 참 좋았다’를 러시아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카자흐스탄에는 이런 종류의 성경읽기 자료들이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신자들이 성경을 읽고 싶어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고, 이곳에서 외국인으로 살고 있는 저희들 역시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할지 막연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성경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러시아어로 번역된 성경 읽기 교재를 이용해 신자들에게 성경 교육을 좀 더 충실하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당과 공소에서 주일학교를 운영할 때, 지금까지는 러시아 가톨릭 교회에서 발행하는 다소 조잡한 어린이 주보를 인쇄해 이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백선우 신부(뒷줄 가운데)와 함께 사목하는 폴란드 신부 두 분과 신자들.



어린이 성경을 지원받는다면 성경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 복음 말씀을 성경에서 직접 찾아보며 어린이들이 성경을
좀 더 양질의 교리교육을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주 : 가까이 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



☞ 카자흐스탄에 대한 지원 내역 : 2023년 6월 16일 러시아어 성경 50권(\$1,250), 어린이 성경 50권(\$650)을 후원하였습니다. (총 \$1,900=2,446,020원)

※ 카자흐스탄의 종교 비율은 이슬람 69.31%, 그리스도교 17.19%, 무교 2.25%, 기타 11.25%(2021년 통계)입니다. 이 중 그리스도교는 정교회 신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약 420만명) 가톨릭 신자는 약 25만명입니다.

국성회 | 후원 현황 및 후원계좌

+ 후원해 주신 분들 - 일반(2023년 6월~7월)

● 고현수 ● 김금재 ● 김덕순 ● 김명숙 ● 김명희 ● 김미교 ● 김범준 ● 김병희 ● 김성권 ● 김영추 ● 김영환 ● 김윤순 ● 김진우 ● 김현경
● 김현숙 ● 나삼균 ● 민영진 ● 박소향 ● 박언빈 ● 박종대 ● 송미경 ● 송보영 ● 신해경 ● 양영실 ● 오세형 ● 오영신 ● 윤영순 ● 윤영찬
● 윤용식 ● 윤종구 ● 윤창현 ● 이강득 ● 이경식 ● 이미순 ● 이상숙 ● 이상현 ● 이용애 ● 이은행 ● 이장순 ● 이재청 ● 이정석 ● 이정희
● 이종대 ● 이종환 ● 이향희 ● 이현옥 ● 이현창 ● 이혜순 ● 임한미 ● 장을숙 ● 전대영 ● 정재숙 ● 조하영 ● 조현순 ● 진석실업 ● 최두혁
● 최명옥 ● 최홍규 ● 하금태 ● 허 근 ● 홍성실 ● 홍지원 ● 황세희 ● 황태운

+ 후원해 주신 분들 - 사제 및 단체(2023년 6월~7월)

● 김경식 ● 김원호 ● 박우준 ● 백성호 ● 서상범 ● 오창선 ● 유경춘 ● 이계호 ● 이문주 ● 임상무 ● 정순택 ● 최광희 ● 최명근 ● 최정훈
● 한정화 ● 홍근표 ● 익명후원자

+ 신규 후원회원 - 일반(2023년 6월~7월)

● 우영숙

+ 신규 후원회원 - 사제 및 단체(2023년 6월~7월)

● 고 신광호(베드로) 신부님을 기억하는
신자들의 모임(6월 19일 619,000원 후원)

■ 2023년 6월~7월 후원금 내역 : 8,720,000원

+ 국성회 후원 방법

1. 지로용지 신청

국성회 사무실(02-2676-9981)에 성함,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지로 용지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2. 은행 송금

-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인터넷 뱅킹 송금/모바일 뱅킹 송금/은행창구 송금
- 자동 계좌이체의 경우 신분증, 도장, 통장을 지참하고 은행에 가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뒤에 국성회 사무실 전화번호(02-2676-9981) 혹은 이메일(overseas-bible@hanmail.net)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5-801-003937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국민은행	364301-04-106412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2023년 9월 후원회 미사 알림



일시 : 2023년 9월 12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요셉의원 3층 경당(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100길 6)

교통 :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6번 출구에서 문래동 쪽 200m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마라.
땅에서는 썩과 녹이 망가뜨리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 간다.
그러므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거기에서는 썩도 녹도 망가뜨리지 못하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며 훔쳐 가지도 못한다.
사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 마태오 19:21 |

노숙자와 행려자, 알콜의존증 환자, 외국인근로자와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도와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병원은 요셉나눔재단법인의 자선 의료기관으로서 여러분의 정성 어린 후원과 봉사에 힘입어 35년 간 국내외의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배움과 주시는 사랑의 손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변함 없는 성찬을 부탁드립니다.



♥ 요셉의원 후원 방법

1. 요셉의원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의 '후원 신청' 혹은 '후원 안내' 메뉴의 '후원 신청'을 클릭해 들어간 뒤 왼쪽의 '정기후원(CMS)' 버튼을 누른 다음 후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기존 일반 자동이체 회원 ● CMS 전환 희망자 포함).

2. 요셉의원에 전화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후원관리팀에 전화(070-4688-3416)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후원신청을 합니다(녹취를 통한 CMS 자동이체 신청).

3. 은행에 신청하기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시거나 신분증과 도장,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신청을 하신 후에는 전화(070-4688-3416) 또는 donation@josephclinic.org로 입금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기업은행	209-000118-01-010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우리은행	172-066521-01-101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국민은행	364-01-0000-976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하나은행(구 외환은행)	111-13-04699-8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하나은행	193-890037-13505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우체국	010108-01-011536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요셉의원 환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목욕서비스

시간 월~금요일 오후 1~3시 남성
3~5시 여성

장소 1층 목욕실



법률상담

상담 예약 문의 전화 070-4688-3413
(오후 1시~5시 전화 연결 가능)



영화상영

시간 매월 셋째 화요일
오후 1시 30분~4시 30분

장소 4층 도서관



음악치료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3시 30분

장소 4층 도서관



도서관 운영

시간 월, 화, 수, 금요일 오후 1시~5시
(화요일은 4시까지)



폭방 도시락 나눔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장소 거동 불편한 노년층 방문

미사 안내

요셉의원 3층 경당에서는
월~금요일 미사가 봉헌됩니다.



월요일 : 후원자를 위하여

화요일 : 환자들을 위하여

목요일 :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금요일 : 세상을 떠난 선우경식 원장과
후원자, 환자, 봉사자의 영혼을 위하여

✦ 봉사자와 환우 분들을 환영합니다.

“소중한 봉사의 경험과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요셉의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있었던 감동적인 스토리를 모집합니다.
의료인, 환자, 보호자, 일반 봉사자 등 요셉의원과 관련된 따뜻한 봉사 경험담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 요셉의원 편집부 E-mail : info@josephclinic.org

